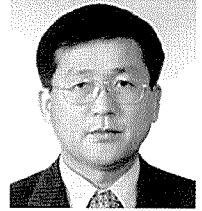


ERP, SFA(영업력강화시스템) 구축에 주력



글 이학규 일동제약(주) MIS 팀장, 제약정보지식협회의원(PiKa) 회장 khlee@ildong.com

국 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매출목표를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지만 영업력과 R&D능력을 갖춘 상위 회사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문약에 '올인'과 세계화 실천 전략을 마련해 놓고 모든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병, 생활 습관병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따른 약가 인하 위협 요인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정착에 따른 판촉비 감소, 일반약 활성화, 전문약 호조 등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드렉스토어 진출로 일반약 활성화 위한 약국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약국영업인력을 많이 보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06년도 제약업종의 정보화 주요 이슈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ERP 도입, 전문약 매출 증대와 계속 증가하는 영업인력들의 영업활동(개인화업무)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업력 강화 시스템,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회계시스템, 개량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업무 시스템 구축 등이다.

ERP 도입은 개발형에서 패키지로 전환되면서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ERP 도입을 검토하

고 있고 SFA는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추세이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구축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업무 시스템은 정부의 전자정부 실현 정책에 맞추어 신약개발의 시작부터 제품출시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관리, EDMS 구축은 상위사를 중심으로 현재 출발점에 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백업과 보안, VPN, Portal 구성, 그룹웨어 재구축, LIMS, System Validation, MES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Users**

급변하는 철강시황 대처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글 엄준항 한일철강(주) 전산실 부장, 철강전산인협회 회장 eumjh@hanilsteel.co.kr

지 난 해 철강유통업계에서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많은 회사들이 보유재고의 평가손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다. 2004년에 중국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모든 원자재수입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이 작년에는 많은 철강제모일 완성과 중국 내 내수 시장 위축과 더불어 수출에 생산제품을 쏟아내면서 원자재가격 폭락장세를 가져왔고 산업의 기초소재인 철강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던 국내의

상당수 업체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러한 기업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경영자나 일선에서 뛰는 영업인들에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분야에 역량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회계개혁법안 관련 시행령' 확정발표로 인하여 상장업체나 일정매출 이상인 업체는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accounting control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전사적인 업무가 되겠지만 상당부분은 전산자료의 신뢰성에 초점이 맞추어 자료의 오류 방지, 기록 보관하는 관리방법과 위·변조 및 훼손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와 규정을 만들어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Users**